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백지민** · 임정하***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소재한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질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재적 자기애, 부모 지지, 친구 지지, 사회적 불안감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평가하였다. 자료는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과 단순기울기 검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은 내재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부모 지지는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친구 지지는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친구 지지가 낮은 경우 내재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반면, 친구 지지가 높은 경우 내재적 자기애 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로부터 받는 많은 지지가 사회적 상황에서 받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친구 지지가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학생, 내재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사회적 불안감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 제1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jhlim@korea.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폭이 확대되는 때이다. 대학생들은 한정된 관계망과 생활환경을 경험하던 중·고등학교 시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야 하고, 비교적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 위주의 수동적 중·고등학생 시기와 달리, 대학생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면서 생애 발달 단계 가운데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급변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사회적 관계망을 잘 형성하고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Erikson, 1959). 그러나 대학생에게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기 쉽다(김정진, 2009; 한가희, 2015).

사회적 불안감(social anxiety)이란 타인과 마주한 실제 상황이나 상상 속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Morrison & Heimberg, 2013; Schlenker & Leary, 1982). 사회적 불안감의 주된 특징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받게 되어 마주하게 될 상황에 대한 불편감과 회피 성향이다(Clark & Arkowitz, 1975; Schry, Roberson-Nay & White, 2012).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수준의 불안감은 성취의 원동력이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도 하지만(정옥분, 2015),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능 손상, 삶의 만족감 저하, 우울증, 약물남용,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김나래, 이기학, 2015; 노승혜, 조현주, 2017). 특히 대학시절 겪는 사회적 불안감은 성인기의 취업과 진로 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부적응과 관련되기도 한다(김나래, 이기학, 2015; Schry, Roberson-Nay & White, 2012).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정현희, 정미정, 2002; 한동현, 조영아, 2017), 비합리적 신념(박지연, 양난미, 2014),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김지혜, 조용래, 2015;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과 같은 인지적 특성들과 관련 되어왔다. Rapee와 Heimberg(1997)는 인지적 특성 가운데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정보 처리의 왜곡과 편향이 어떻게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지, 인자

행동 모델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타인을 비판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느낀 사회적 불안감은 개인의 수행 수준을 낮추고, 이는 다시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불안감 유지·강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Rapee와 Heimberg(1997)의 인지-행동 모델은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이 사회적 불안감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apee와 Heimberg(1997)의 인지-행동 모델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이 완충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사고로서, 사회적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특성으로는 자기가 있다. 자기에(narcissism)란 강한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자기 찬미에 몰입하는 경향, 자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의미한다(Beck, Davis, Freeman & Associates, 2004). 자기에에는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와 내재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로 나눌 수 있다(Wink, 1991). 외현적 자기에는 과시행위, 자만심,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집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에 성향을 말한다(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 외현적 자기에가 높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요구하고, 자신의 위대함에 대해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표현 욕구를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 우울, 소진감 등의 정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내재적 자기에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억제하는 자기에 성향이다(강선희, 정남운, 2002; Wink, 1991).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내현적 자기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억제함으로써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내재적 자기에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내재적 자기에'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재적 자기에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이미지 손상을 막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억제 성향을 보인다(Cooper, 2000). 즉, 타인의 평가로부터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과 평가에 대한 민감성을 특징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쉽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억제된 상태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대인관계의 지속적인 차단과 방어진단성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오하연, 박경, 2017; 최인선, 최한나, 2013). 그리고 반

복된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감 경험은 자기애적 기대를 실망시켜, 부정적 정서를 심화·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강예모, 김정규, 2012). 내재적 자기에 성향의 사람들은 소심하고 회피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특성 또한 보인다. 즉, 자기 자신은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나, 타인에게서는 특별한 찬사를 얻기 원하는 자기중심적 대인관계 성향이다. 따라서 회피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쉽게 분노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과한 공격성과 예민함을 드러내는 것이 내재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Hendin & Cheek, 1997; Wink, 1991).

내재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연관이 됨으로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신현민, 2009; Wink, 1991).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강문선, 이영순, 2011), 우울 성향이 많고(곽유미, 2015;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불안(구현경, 김종남, 2014) 및 사회적 불안감(김성주, 이영순, 2015; 정혜진, 양난미, 2017)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심한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은 사회적 불안감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지만, 타인의 긍정적 지지는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Cohen과 Wills(1985)는 심리·물질적 자원 같은 지지적인 사회적 접촉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 사고를 하고, 심리적 안정을 누리며,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측면에서의 도움, 인정, 관심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로,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려움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해 주는 기능을 하며(하주영, 2010; Coffman & Gilligan, 2002) 우울이나 외로움,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희, 2017; 지은미, 조영채, 2014; Hefner & Eisenberg, 2009; Shukla & Joshi, 2017). 또한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을 돕고(박미경, 김영숙, 이현립, 2008),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며(이옥형, 2012; 이자영, 최용

용, 2012; Yuan, 2017),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중운, 김지현, 2013; 송진열, 2017; Ramsay, Jones & Barker, 2007). 하지만 사회적 지지는 종합적 개념으로 주로 연구되어 특정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지원의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교수, 선후배,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그 중에서도 부모와 친구가 대학생들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타인이며, 다른 지지원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윤혜정, 1993; 이진순, 1998; 이현진, 2009). 부모는 여러 연구들(박광희, 2008; 송정애, 장정순, 2010; Friedlander, Reid, Shupak & Cribbie, 2007)에서 대학생시기에도 중요한 지지원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생 시기에 비해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 실질적 공유시간이나 정서적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부모로부터의 지지는 여전히 낮설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적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 및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박은선, 이재창, 2009; 배서영, 2017; Howes, Hamilton & Matheson, 1994; Wintre & Yaffe, 2000). 특히 부모의 지지는 대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밝혀져(박재연, 김정기, 2014; 이해선 외, 2012;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의 지지는 지각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시절 급격하게 관계망이 넓어지면서, 친구는 대학생에게 보다 중요한 지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연령에서 친구는 중요하지만 수업이나 동아리, 미팅, 학술모임, 취업준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생에게는 더욱 그 영향력이 크다. 친구들과의 관계망은 애정, 동정, 이해의 장이고, 삶에 대한 실험의 장이며,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을 얻기 위한 후원의 장이기도 하다(정옥분, 2015). 이러한 친구의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줄이고(박영례, 장은희, 2013; 박재연, 김정기, 2014; 정주리 외, 2015)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홍구표, 전혜성, 2017)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자발적인 가족 관계와 달리, 친구 관계는 자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는 부모와 다른 특성을 가진 지지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주요 지지원으로 부모와 친구를 선정해 살펴보고, 지지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원에 따라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지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불안감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2-1.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부모 지지가 조절하는가?

2-2.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친구 지지가 조절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이 192명, 여학생이 217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2.71세($SD=2.18$)였고, 대학교 2학년(35.4%)이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의 전공은 인문·사회·교육계열(59.7%)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60.4%, 모: 61.1%)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 관리직(30.3%)이,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0.1%)가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1) 내재적 자기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Cheek, Hendin과 Wink(2013)가 개발한 부적응적 내재적 자기에 척도(The Maladaptive Covert Narcissism Scale : MCN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MCNS 척도 개발자로부터 한국어 번역 및 사용의 허락을 받은 후 한국어로 번안하고 발달분야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확인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에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순된 경향 즉,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입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평가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지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Cheek과 동료들(2013)은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를 .8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윤혜정(1993)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지원별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변 지지원으로부터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관심, 격려 등의 정서적 지지와 충고, 조언과 같은 정보적 지지, 그리고 공정한 평가, 의사존중 등에 관한 평가적 지지와 돈, 물건,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물질적 지지를 포괄하고 있다. 원 척도에서 지지원으로는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 각각의 지지원이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지원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지지원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 지지원을

부모와 친구로 선정하고 사회적 지지를 각각 측정하였다. 이 때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각각의 지지를 측정한 후 합산하여 평균을 도출한 값을 부모 지지로 산출하였다. 또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의 경우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한 사람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윤희정(1993)은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아버지 지지 .97, 어머니 지지 .97, 친구 지지 .95로 나타났다.

3) 사회적 불안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척도로 사용하였다. SADS는 총 28문항이며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회피 요인은 14문항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의 심리적 불편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덜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 문항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약속을 피하려고 자주 핑계를 생각해 낸다.’ 등이 있다. 사회적 불안 요인은 14문항으로 낯설고 처음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 문항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임에서 종종 당황함을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은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전체 Cronbach α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전체 .90, 사회적 회피 요인 .83, 사회적 불안 요인 .8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조사에 앞서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에 대한 문항 이해도와 절차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18년 4월,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5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전에 조사 대상 대학교의 교양 및 전공과목 교수자에게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직접 대학교에 방문하였고 참여 학생과 협조 교수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비밀 보장 및 사생활 보호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응답은 강의시간 전후를 이용해 강의실에서 이루어졌고,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배부된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19부)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7부)는 제외하고 409부(94.02%)를 실제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사회적 불안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별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고,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와 공차, VIF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지지원별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번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내재적 자기애와 조절변인인 부모 지지 또는 친구 지지를 각각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 부모 지지 또는 친구 지지의 내재적 자기애와의 상호작용변인을 추가 투입하여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할 때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피하고 회귀계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기법을 사용하였다(홍세희, 정송, 2014).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난 경우, 조절변인의 어느 값에서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단순기울기 검증 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때 조절 변인의 특정 값은 회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 1 의 값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불안감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먼저,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는 사회적 불안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41, p<.001$). 즉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타인의 반응을 걱정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할수록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회피 증상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는 친구 지지($r=-.25, p<.001$), 부모 지지($r=-.21, p<.001$) 순으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친구나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지원과 격려를 많이 받을수록 타인의 반응을 염려하여 쉽게 상처받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는 성향이 적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사회적 불안감은 친구 지지($r=-.21, p<.001$), 부모 지지($r=-.15, p<.01$)의 순으로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나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내재적 자기애, 자기수용 및 사회적 불안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N=409)

	1	2	3	4	M	SD
1. 내재적 자기애		-.21***	-.25***	.41***	2.66	.51
사회적 지지	2. 부모 지지		.48***	-.15**	4.21	.70
	3. 친구 지지			-.21***	4.00	.56
	4. 사회적 불안감				2.89	.52

** $p < .01$. *** $p < .001$.

2.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부모 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부모 지지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재적 자기애와 부모 지지가 투입된 모형 1은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에 대하여 17%의 설명력을 보였다($F=41.54$, $p < .001$). 또한 내재적 자기애가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0$, $p < .001$). 모형 2에서는 내재적 자기애와 부모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 2의 설명력은 여전히 17%이었으며($F=27.92$, $p < .001$),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부모 지지의 조절효과 (N=409)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내재적 자기애(A)	.40	.40***	.39	.39***
부모 지지(B)	-.05	-.07	-.06	-.08
(A) × (B)			.06	.04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i>adj R</i> ²	.17		.17	
ΔR^2			.00	
<i>F</i>	41.54***		27.92***	
ΔF			.73	

*** $p < .001$.

2)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친구 지지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재적 자기에와 친구 지지가 투입된 모형 1은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에 대하여 17%의 설명력을 보였다($F=43.56, p < .001$). 내재적 자기에($\beta=.36, p < .001$)와 친구 지지($\beta=.11, p < .05$)는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내재적 자기에와 부모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형 2의 설명력이 추가적으로 2% 증가하였다($F=33.11, p < .001$). 내재적 자기에($\beta=.41, p < .001$)와 친구 지지($\beta=.10, p < .05$), 상호작용항($\beta=-.15, p < .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가 친구의 지지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에와 친구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구 지지가 낮은 경우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친구 지지가 높은 경우 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의 증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표 3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조절효과 (N=409)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내재적 자기애(A)	.38	.38***	.42	.41***
친구 지지(B)	-.10	-.11 ^o	-.10	-.10 ^o
(A) × (B)			-.26	-.15**
<i>adj</i> R ²	.17		.19	
ΔR^2			.02	
F	43.56***		33.11***	
ΔF			10.23**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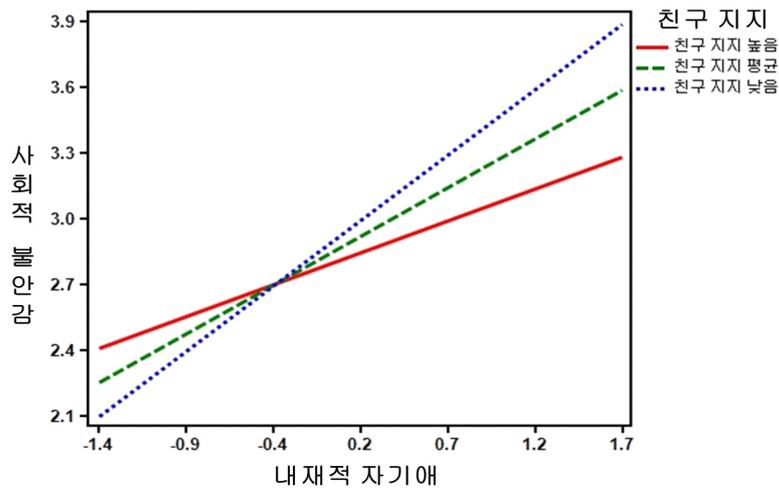


그림 1. 내재적 자기애와 친구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표 4
친구 지지의 조건 값에 따른 내재적 자기애의 단순기울기 검증 (N=409)

조절변인		B	SE	t
친구 지지	M - 1SD	.56	.07	7.72 ^{***}
	M	.42	.05	8.74 ^{***}
	M + 1SD	.27	.06	4.73 ^{***}

*** $p < .001$.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단순기울기는 친구 지지가 낮은 경우(-1SD) .56($t=7.72$, $p < .001$)이었고, 평균의 경우 .42($t=8.74$, $p < .001$), 높은 경우(+1SD) .27($t=4.73$, $p < .001$)로 나타났다. 즉, 조절 변인인 친구 지지의 조건 값이 커질수록 단순기울기는 점점 작아졌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내재적 자기애와 부모 지지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지지는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내재적 자기애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지만, 부모의 지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내재적 자기애와 친구 지지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구의 지지는 내재적 자기애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내재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우, 내재적 자기애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재적 자기에,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불안감과 회피욕구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오하연, 박경, 2017; 윤성민, 신희천, 2007; 정혜진, 양난미, 2017; Schurman, 2000)과 일치한다. 기존 연구자들은 내재적 자기에 성향의 특성과 사회적 불안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노우빈, 홍혜영, 2016; Cooper, 2000). 이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에 대해 생각하고, 쉽게 타인의 기준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고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성주와 이영순의 연구(2015)에서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완벽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기대가 높아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한 감정을 야기하고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하영과 신태섭의 연구(2016)에서는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고, 자기제시 동기와 기대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완벽하고자 하는 이상적 자기와 기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인식되는 실제적 자기 간의 괴리감을 느껴 수치심을 느끼기 쉽고,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를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

협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나 친구의 지지가 낮은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적응, 불안, 사회적 불안감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박지연, 양난미, 2014; 유연화, 이신혜, 조용례, 2010; Calsyn, Winter & Burger, 2005)과 유사한 결과이다. 인간은 부모나 친구와 같이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때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모두 비판적·부정적이라고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인식은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노출된 상황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별과제 수행, 동아리 활동, 취업 면접 등과 같이 대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수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재적 자기에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지지는 완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부모 지지를 친구 지지보다 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 지지가 친구 지지에 비해 사회적 불안감과 관련성이 낮았고, 내재적 자기에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보호 요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적 성취를 갈망하고(곽금주, 2010), 부모와의 공유시간이 줄어든다. 초기 청소년기와 유사하게 부모는 대학생의 주요 지지 제공원이지만, 후기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상 부모 지지의 영향력은 이전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부모 지지는 친구 지지와 다른 비상호적인 관계로써 해석될 수 있다(김미령, 2005; Antonucci, Fuhrer & Jackson, 1990). Rook(1987)은 부모 지지에 대해, 관심과 걱정이 포함되지만 다른 지지원의 지지와 다르게 부모의 지지는 비자발성과 의무감을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지지는 지지 자체가 당연시되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라는 자발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 적응과 같은 사회적 적응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부모 지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문승태, 김민배, 박행모, 2006; 이수희, 정갑연, 장용운, 2016)과도

같은 맥락이다.

몇몇 연구자들(Buunk & Hoorens, 1992; Cohen & Syme, 1985; Cohen & Wills, 1985)은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반적인 긍정적 영향으로서의 직접효과와 스트레스 요인 발생 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호기능으로서의 완충효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추어보았을 때, 부모 지지는 직접 효과로서 사회적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재적 자기와 사회적 불안감의 관계에서 완충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있으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적 불안감이 존재할 때, 부모 지지의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Kernberg(1975)에 의하면 자기에는 자기에 대한 애정적 감정을 통해 과대자아가 형성되기보다 부모의 비밀관성과 과잉 기대로 인한 자기보호의 반작용으로서 거대자아 환상 및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가 생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의 과보호, 과민정서반응,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을 높인다고 한 연구들(강선모, 임혜경, 2012; 조용주, 박선영, 2017; 홍영미, 성현란, 2012)을 고려해보면,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부모의 지지는 과민정서반응이나 비밀관적 양육태도의 일부 분으로서 간주되어 보호적 기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내재적 자기가 사회적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 친구 지지는 완충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아도 친구 지지를 지각한 정도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이 친구 지지까지 적은 경우, 동일한 성향의 사람이 친구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친한 친구의 긍정적 지지와 지원이 있다면 그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친구 지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완벽주의, 자기 자비 등과 같은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때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유연화, 이신혜, 조용례, 2010; Solberg & Viliarreal, 1997; Zhou, Zhu, Zhang & Cai, 2013)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 대상의 사회적 불안감과 관련된 친구 지지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나,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오지현, 이정

숙, 2014)에서 친구 지지는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켰다. 또한 친구 지지는 관계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대학생들의 부정정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재연, 김정기, 2014; 오가혜, 안창일, 2006). 종합해보면, 친구 지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받을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된다. 특히 비합리적 신념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져 왔으므로 친구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비합리적 신념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평가할 때, 가장 가깝게 느끼는 한 사람의 친구를 선정하여 응답하게 하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단 한명의 친구라도 따뜻한 지지와 지원을 보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안감의 감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한편,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적은 경우, 친구의 지지가 많아도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강선희와 정남운(2002)은 내재적 자기에가 억제·소극적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자기에의 핵심적인 특성인 거대자기 환상과 특권의식, 자만심, 자기방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감안하였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적은 경우,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친구의 지지가 위협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Rapee와 Heimberg(1997)에 의하면 타인을 비판적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의 평가를 매우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더불어 주의 자원에 대해 선택적인 할당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불안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피드백에 주의 초점을 맞추어 타인의 평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볼 때,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 지지의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선행됨과 함께 친구의 지지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그러나 같은 연령이라 할지라도 대학생과 비진학 취업자 혹은 재수생의 경우, 서로 다른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다른 심리적 상황과 과정을 초래할 수 있다. 남재욱, 김영민과 한기명(2018)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 노동자들의 경우,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하여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무하지만, 대부분 저임금·비숙련의 일자리로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후기 청소년 전체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 넓은 후기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감을 연구하기 위해 재수생, 취업자 등과 같은 대상을 포함해 표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재적 자기에의 억제 성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응답자의 방어적 태도 혹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문제로 인해 내재적 자기에의 정도, 사회적 지지의 수혜정도, 사회적 불안감이 설문 응답자들의 실제보다 과장 또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내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은 거대자기환상과 자기중심사고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민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외에 투사적 검사, 개인 면담 혹은 부모 보고 등의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모와 친구를 선정해 이들의 완충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원과 영향력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형제, 선배, 후배, 교수 등 지지원의 폭을 넓혀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과 관련하여 내재적 자기와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갖는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내재적 자기와 사회적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인지적 특성이 부적응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2011).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545-1560. doi:10.15703/kjc.12.5.2011.1545
- 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대학생의 사회불안,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 정서와 우울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교육연구논총**, 32(2), 1-27. doi:10.18612/cnujcs.2011.32.2.1
- 강선모, 임혜경 (2012). 대학생의 과보호 및 부모화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4), 53-78.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예모, 김정규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331-348.
- 곽금주 (2010). **흔들리는 20대: 청년기 생애실계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곽유미 (2015). 대학생의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자기제시 동기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중다매개효과. **인간이해**, 36(2), 1-19.
- 구현경, 김종남 (2014).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 부적응적 완벽주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609-636. doi:10.15703/kjc.15.2.201404.609
- 김나래, 이기학 (2015). 대학생의 인정욕구, 사회적 지지, 사회불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4), 245-264. doi:10.15703/kjc.16.4.201508.245
- 김미령 (2005).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이론 및 방법론적 고찰. **임상사회사업연구**, 2(1), 99-121
- 김성주, 이영순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doi:10.15703/kjc.16.1.201502.199
- 김정진 (2009). 대학생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2, 413-436.
- 김종운, 김지현 (2013).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248-259. doi:10.5392/JKCA.2013.13.09.248
- 김지혜, 조용래 (2015). 대학생들의 건강염려증상과 사회불안증상에서 인지적 취약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역할. **인지행동치료**, 15(1), 113-136.
- 나하영, 신태섭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95-717.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doi:10.16999/kasws.2018.49.1.221
- 노승혜, 조현주 (2017). 사회불안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통 감내력과 회피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429-449.
- 노우빈,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7, 81-102.
- 문승태, 김민배, 박행모 (2006). 동일계 진학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9(2), 237-247.
- 박광희 (2008). 대학생 우울에 관한 예측모형 구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8(6), 779-788.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2), 255-266.
- 박영례, 장은희 (2013).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25(5), 549-558.
- 박영희 (2017). 대학생의 우울,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1), 111-116. doi:10.4094/chnr.2017.23.1.111
- 박은선, 이재창 (2009). 진로상담: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2), 947-965. doi:10.15703/kjc.10.2.200906.947
- 박재연, 김정기 (2014).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 167-189.
- 박지연, 양난미 (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63-386.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서영 (2017).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113-140. doi:10.22251/jlcci.2017.17.20.113
- 송정애, 장정순 (201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가족기능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1), 119-144.
-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335-345. doi:10.5762/KAIS.2017.18.12.335
- 신현민 (2009).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사회불안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신념을 매개변인으로**.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가혜, 안창일 (2006).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57-673.
- 오은혜, 노상선, 조용래 (2009). 부정적인 사회적 자기 개념과 정서조절곤란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9, 75-89.
- 오지현, 이정숙 (2014).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1), 35-51.
- 오하연, 박경 (2017).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 335-354. doi:10.21509/KJYS.2017.01.24.1.335
- 유연화, 이신혜, 조용래 (2010). 자기 자비,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증상들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0(2), 43-59.
- 윤성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 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67-982.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희, 정갑연, 장용운 (2016). 미용관련학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와 학과 만족도와의 관계연구. **상업교육연구**, 30(3), 21-47.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

- 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자영, 최용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doi:10.15703/kjc.13.3.201206.1481
- 이정운,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 이진순 (1998).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관한 비교연구: 갈등해결양식, 의사결정방식,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선, 김성연, 박일, 강여정, 이지영, 권정혜 (2012). 대학생의 자살관련생각과 행동의 원인 및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03-728.
-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201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주리, 김은영, 최승애, 이유정, 김정기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실수염려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우울을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25-349.
- 정현희, 정미정 (2002). 자의식, 자기개념, 비합리적 신념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39-53.
- 정혜진, 양난미 (2017).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공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38(2), 95-114.
- 조용주, 박선영 (2017). 부모의 공감적 정서반응과 과민정서반응이 자녀의 내현적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0), 83-105. doi:10.21509/KJYS.2017.10.24.10.83
- 지은미, 조영채 (2014). 일부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5), 2996-3006. doi:10.5762/KAIS.2014.15.5.2996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815-2831. doi:10.15703/kjc.14.5.201310.2799
- 하주영 (2010). 자아존중감, 가족기능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17(2), 259-266.
- 한가희 (2015). **대학생의 부정적/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동현, 조영아 (2017). 대학생의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4(3), 473-491.
- 홍구표, 전해성 (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34-67. doi:10.15709/hswr.2017.37.1.34
- 홍세희, 정송 (2014).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상호작용효과 검증: 이론과 절차. **인간발달연구**, 21, 1-24. doi:10.15284/kjhd.2014.21.4.1
- 홍영미, 성현란 (2012). 대학생의 기질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이 외현적·내재적 자기에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35-48.
- Antonucci, T. C., Fuhrer, R., & Jackson, J. S. (1990). Social support and reciprocity: A cross-ethnic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4), 519-530. doi:10.1177/0265407590074008
- Beck, A. T., Davis, D. D., Freeman, A., & Associates. (2004).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Buunk, B. P., & Hoorens, V. (1992).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exchange processe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4), 445-457. doi:10.1111/j.2044-8260.1992.tb01018.x
- Calsyn, R. J., Winter, J. P., & Burger, G.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 test of competing causal models. *Adolescence*, 40(157), 103-113.
- Cheek, J. M., Hendin, H. M., & Wink, P. M. (2013). An expanded version of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The maladaptive covert narcissism scale.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Research in Personality, Charlotte, NC*.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1), 211-221. doi:10.

2466/pr0.1975.36.1.211

- Coffman, D. L., & Gilligan, T. D. (2002). Social support,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 Practice*, 4(1), 53-66. doi:10.2190/BV7X-F87X-2MXL-2B3L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doi:10.1111/j.1559.1816.1983.tb02325.x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and Health*, 3, 3-22.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doi:10.1037/0033-2909.98.2.310
- Cooper, A. M. (2000).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F. Elsa, & E. Ronningstam (Eds.),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London: Jason Aronson Inc.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iedlander, L. J., Reid, G. J., Shupak, N., & Cribbie, R. (2007).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tres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among first-year undergraduat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3), 259-274. doi:10.1353/csd.2007.0024
- Hefner, J., & Eisenberg, D. (2009).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9(4), 491. doi:10.1037/a0016918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doi:10.1006/jrpe.1997.2204
-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 (1994). Maternal, teacher, and child care history correlates of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 Development*, 65(1), 264-273. doi:10.1111/j.1467-8624.1994.tb00749.x
- Kernberg, O.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Morrison, A. S., & Heimberg, R. G. (2013). Social anxiety and social anxie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249-274.
- Ramsay, S., Jones, E., & Barker, M. (2007). Relationship between adjustment and support types: Young and mature-aged local and international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Higher Education*, 54(2), 247-265. doi:10.1007/s10734-006-9001-0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doi:10.1016/S0005-7967(97)00022-3
- Rook, K. S. (1987). Reciprocity of social exchange and social satisfaction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45-154.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doi:10.1037/0033-2909.92.3.641
- Schry, A. R., Roberson-Nay, R., & White, S. W. (2012). Measuring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s: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AI-23. *Psychological Assessment*, 24(4), 846. doi:10.1037/a0027398
- Shukla, A., & Joshi, R. (2017).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related to loneliness among college going first year students.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3), 398-400.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shame and hypersensitive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Solberg, V. S., & Viliarreal, P. (1997). Examination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stress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ress among Hispanic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2), 182-201.

doi:10.1177/07399863970192006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 doi:10.1037/h0027806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
- Wintre, M. G., & Yaffe, M. (2000). First-year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s a function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1), 9-37. doi:10.1177/0743558400151002
- Yuan, G. U. O.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 Based on Positive Mental Quality. *Canadian Social Science, 13*(10), 22-28.
- Zhou, X., Zhu, H., Zhang, B., & Cai, T. (2013).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1*(7), 1141-1152. doi:10.2224/sbp.2013.41.7.1141

ABSTRACT

The effect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amongst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aek, Jimin* · Lim, Ju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a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A total of 409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came from five colleges in Seoul and Gyeonggi-do. Covert narcissism, parents' support, friend's support, and social anxiety were assessed by mean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rrel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social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vert narcissism, but inversely associated with social suppor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simple slope analyses revealed that the link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ocial anxiety was moderated by levels of friend's support, but not by parental support. That is,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social anxiety was buffered by the support of frien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upport given by friends could operate as a protective factor for college students against social anxiety.

Key Words: college students, covert narcissism, social support, social anxiety

투고일: 2018. 9. 5, 심사일: 2018. 11. 9, 심사완료일: 2018. 11. 26

*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